

한의학의 정신 생리와 병리에 대한 소고 -황제내경의 오신, 칠정을 중심으로-

최우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A Study on Psychophysiology and Psychopathology of Korean Medicine –Focus on Emotion and Thought in *Huangdineijing*

Woo-Jin Choi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Received: March 4, 2018

Revised: March 21, 2018

Accepted: March 22, 2018

Correspondence to

Woo-Jin Choi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gil, Wonju,
Korea.

Tel: +82-33-741-9280

Fax: +82-33-732-2124

E-mail: jinny21c@hanmail.net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Sangji
University Reserch Grant in 2017.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bout the psychophysiology and psychopathology of Korean Medicine.

Methods: The concepts and functions of spirit (神), soul (魂魄), five spirits (五神), and seven emotions (七情) occurring in the *Huangdineijing* have been interpret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ought and emotion considered.

Results and Conclusions: (1) Spirit (神) refers to the source and discipline of vital activity and mental activity. (2) With soul (魂魄), ethereal soul (魂) manifests itself as the mental process, and corporeal soul (魄) as the physical sensory interaction, such as the nervous system. (3) In the five spirits, ethereal soul (魂) is the recognition process of drawing out memories. Spirit (神) is the process of creative thought. Cognition (意) is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integrate information. Corporeal soul (魄) is the process of selecting what is important and choosing it. Will (志) is the process of storing memories. Ethereal soul (魂) and corporeal soul (魄) of the five spirits (五神) and soul (魂魄) use the same characters, but the meaning differs. Also, spirit (神) and the spirit (神) in five spirits (五神) are the same character, but, because the meaning is different, they need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ontext. (4) Heart (心), Cognition (意), Will (志), Thought (思), Consideration (慮), and Wisdom (智) are all cognitive processes, like perception, recognition, and thinking. (5) Psychopathology is when excessive emotion affects the five viscera, harming the Energy (氣) and Blood (血) and eventually affecting the five spirits, which causes problems in thinking. Therefore, for healthy mental functioning, not only must the emotions be regulated so that they do not become excessive, but the five viscera also need to be kept healthy.

Key Words: Psychophysiology, Psychopathology, Five spirits (五神), Soul (魂魄), Seven emotions (七情).

I. 서론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되어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둘은 상호의존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한의학의 정신 생리와 병리에는 심신일여(心身一如)와 형신합일(形神合一)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¹⁾. 한의학에서는 물질적인 육체와 대비되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신(神)이라 하였고, 기능에 따라 신명(神明), 신기(神氣), 정신(精神)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²⁾. 이 가운데 정신은 지각, 사고, 기억, 감정이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³⁾으로서 이를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효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한다⁴⁾. 이러한 정신기능에 대해 황제내경(黃帝內經)⁵⁾에서는 심(心)·의(意)·지(志)·사(思)·여(慮)·지(智)의 인지과정과 혼(魂)·신(神)·의(意)·백(魄)·지(志)의 오신(五神), 그리고 희(喜)·노(怒)·우(憂)·사(思)·비(悲)·공(恐)·경(驚)의 칠정(七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의학의 정신에 대해서는 신(神)에 대한 연구²⁾, 정신과 육체에 대한 연구⁵⁾, 혼백(魂魄) 연구⁶⁻⁸⁾, 오신(五神) 연구⁹⁻¹²⁾, 심·의·지·사·여·지에 대한 연구¹³⁾, 칠정(七情) 연구¹⁴⁻¹⁶⁾ 등 신의 개념과 정신 작용의 구분,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정(精)·신(神)·혼(魂)·백(魄)에서의 혼·백과 오신에서의 혼·백, 신령스럽거나 정신적인 것을 총칭하는 신(神)과 오신의 신, 인지과정의 의(意)·지(志)와 오신에서의 의·지는 같은 한자(漢字)가 사용되지만 의미하는 내용은 달라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고, 해석도 다양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또 과도한 감정 변화가 오장에 영향을 미치는 칠정상(七情傷)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감정을 하나의 장(臟)에 배속하고 있어 두 개 이상의 장에 나타나고 있는 병리적 문제가 간과되기도 하고, 감정이 사고(思考) 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신 장애를 유발하는 기전이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기도 하다.

이는 정신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작용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통해 유추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전(原典)에 나타난 고문(古文)의 표현이 간결하고 함축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²⁾. 이러한 난제 속에서도 한의학에 기반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 작용을 설명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중요하고, 정신적 문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적 문제가 정신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임

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영추·본신(靈樞·本神)》을 중심으로 황제내경에 나타난 정신 개념인 신, 혼백, 오신, 심·의·지·사·여·지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 중 동자어(同字異義語)인 신과 혼·백, 의·지 등 각각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과도한 감정이 기의 변화나 오장에 미치는 영향과 감정이 사고 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신 장애를 유발하는 기전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의학의 정신 개념을 적용하여 한의 정신 생리와 병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II. 본론

1. 신(神)

한의학에서 신은 광의로는 육체와 정신을 총괄하는 모든 생명활동 또는 이를 발현시키는 주체를 나타내고, 협의로는 사유·의식·지각·정서 등 정신활동과 감각·운동 등 신체활동을 나타내고 있어 인간의 생명을 통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1,2)}.

황제내경에서 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이란 글자가 포함된 용어는 신명(神明), 신기(神氣), 정신(精神), 신기(神機), 신령(神靈), 귀신(鬼神) 등으로 신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먼저 신은 “음양불측위지신(陰陽不測謂之神 《素問·天元紀大論》^{17,18)}”에서는 자연규율을 의미하고, “양정상박위지신(兩精相搏謂之神 《靈樞·本神》^{17,19)}”에서는 생명 활동을 의미하며, “신무영어중물자, 정지관병인(神無營於衆物者, 靜志觀病人 《素問·侵害》^{17,18)}”에서는 정신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경에서는 정기(正氣), 혈기(血氣), 수곡정기(水穀精氣), 경기(經氣) 등을 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명(神明)은 “천지동정, 신명위지강기(天地之動靜, 神明爲之綱紀 《素問·陰陽應象大論》^{17,18)}”에서는 사물은 동변화의 동력을 의미하고, “심자, 군주지관, 신명출연(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 《素問·靈蘭秘傳論》^{17,18)}”에서는 정신활동을 의미하며, “시고성인전정신, 복천기, 이통신명(是故聖人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素問·生氣通天論》^{17,18)}”에서는 자연변화의 규율을 의미하는 등 여러 가지 뜻을 보이고 있다.

신기(神氣)는 “기거여경, 신기내부(起居如驚, 神氣乃浮

《素問·生氣通天論》^{17,18)}에서는 오장(五臟)의 양기(陽氣)를 의미하고, “횡골자, 신기소사, 주발설자야(橫骨者, 神氣所使, 主發舌者也 《素問·憂患無言》^{17,18)}”와 출혈, 물지심척, 무중기대경, 신기내평(出血, 勿之深斥, 無中其大經, 神氣乃平)에서는 정신활동을 의미하며, “안마물석, 저침물척, 이기어부족, 신기내득복(按摩勿釋, 著鍼勿斥, 移氣於不足, 神氣乃得復 《素問·調經論》^{17,18)}”에서는 감정을 의미하고 있다.

정신(精神)은 “음평양비, 정신내치(陰平陽秘, 精神乃治 《素問·生氣通天論》^{17,18)}”에서는 생명활동을 의미하고, “지의화즉정신전직(志意和則精神專直 《靈樞·本臟》^{17,18)}”에서는 사유활동을 의미하며, “정신거목, 체읍출야(精神去目, 涕泣出也 《素問·解精微論》^{17,18)}”에서는 눈의 광채를 의미하는 등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신기(神機)는 “근우중자, 명왈신기, 신거즉기식(根于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素問·五常政大論》^{17,18)}”과 “출입폐즉신기화멸(出入廢, 則神機化滅 《素問·六微旨大論》^{17,18)}”에서 나타나는데 생명활동의 개괄을 의미한다.

신령(神靈)은 “금재황제, 생이신령(昔在黃帝, 生而神靈 《素問·上古天真論》^{17,18)}”에서는 총명함을 의미하고, “천지광불가도, 지지대불가량, 대신령문, 청진기방(天至廣不可度, 地至大不可量, 大神靈問, 請陳其方 《素問·六節藏象論》^{17,18)}”에서는 심오하고 변화불측한 것을 의미한다.

귀신(鬼神)은 “구어귀신자, 불가어연지덕(拘於鬼神者, 不可與言至德 《素問·五臟別論》^{17,18)}”이라 하여 죽은 사람의 혼령을 의미한다.

황제내경에서 신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 것은 인체에 다양한 신이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분류한 것¹⁹⁾이며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능적이거나 신령스러운 요소를 모두 신이라는 단어에 담아 두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의 신은 천지 자연의 규율과 그 주재자를 의미하는 천신(天神), 인체 생명 활동의 근본 이치와 정신활동을 의미하는 인신(人神)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그중 인신은 그 역할에 따라 신명과 신기, 정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의 생명 활동의 근원과 규율을 신명(神明)이라 하였고, 신의 기능활동적 측면으로써 생명활동으로 나타나는 외재적 표현양식을 신기(神氣)라 하였으며, 의식과 사유, 지각, 감정 등은 정신(精神)이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은 정신 작용과 신경의 작용, 그리고 생명

활동의 근원이나 생명 활동의 법칙과 같이 물질적인 육체와 비교되는 기능적이거나 비물질적인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

2. 심(心)·의(意)·지(志)·사(思)·여(慮)·지(智)

심·의·지·사·여·지는 감각, 지각, 기억 및 사고 등의 인지·사고(認知·思考)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여 가지게 된 뜻을 추론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판단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다¹⁾. 또한 의사결정 과정(decision-making process)^{21,22)}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선택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심·의·지·사·여·지의 개념에 적용하여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심(心)

《영추·본신》¹⁹⁾에서는 정(精)·신(神)·혼(魂)·백(魄)의 개념을 설명한 후에 심·의·지·사·여·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먼저 사물에 임하는 바를 심이라 한다고(所以任物者, 謂之心)¹⁹⁾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장²³⁾은 심이 군주지관으로 신(神)을 통솔하므로 만물을 심이 맡고 있다고 하였고, 양²⁴⁾은 생명활동을 발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심이라 하였으며 김¹³⁾은 심이 신령을 통솔하여 생명활동을 발휘하고 외부 자극을 인식하여 사유 활동을 하면서 모든 정신 활동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심이 마음과 심장을 포괄하고 정신 활동과 생명을 주관한다는 개념¹⁾을 들어 심이 의·지·사·여·지를 통솔하고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심·의·지·사·여·지는 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에 이르는 인지 과정¹⁾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각각은 수직관계나 포함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심은 신(神)을 통솔하여 의·지·사·여·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작용이 아닌 인지과정의 첫 단계의 작용이며, 그러므로 마음의 기능을 총칭하는 심(心)이란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 단락에서 정·신·혼·백을 설명한 뒤, “그런 까닭에 사물에 임(任)하는 것을 심이라 한다.”고 하였다. 사람이 인지과정 중에 사물에 임²⁵⁾한다는 것은 시각이나 청각 등이 임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

나 주의를 기울이는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대상을 시각으로 지각하거나 청각·후각·촉각 등의 감각으로 지각하여 처음 인식이 생기는 과정이다. 감각은 감각 기관을 단순히 자극하는 것이고, 지각은 중추신경계에 등록된 감각을 조직화하고 식별하고 해석하여 정신 표상을 형성한 것이다³⁾. 따라서 심(心)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한편 심리학에서는 결정이나 행동의 바탕이 되는 것을 욕구(needs)⁴⁾라고 하는데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나 마음에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행동을 일으키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욕구도 심(心)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의(意)

지각한 것(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意)라고 하였는데(心有所憶, 謂之意)¹⁹⁾, 장²³⁾은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하였고, 양²⁴⁾은 마음 속에 단단히 기억하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김¹³⁾은 객관 사물에 대한 기억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일어나는 동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는 대상을 지각하는 심의 과정을 통해 생긴 인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기억에는 감각기억과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있는데 감각이 입력되면 감각 기억이 발생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보는 유실되지만 주의를 기울인 정보는 단기 기억이 된다³⁾. 그러므로 심(心)은 감각 정보를 통해 얻은 지각과 감각 기억을 의미하고, 의(意)는 주의를 기울여 정보가 유지된 인식과 단기 기억을 의미하며 여기서부터 비로소 인지(cognition)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욕구가 자극을 받아 활성화 되면 동기(動機)^{3,4)}가 일어나는데,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이다. 욕구가 생기는 것을 심(心)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으면서 활성화 된 동기는 의(意)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지(志)

의(意)가 마음에 존재하는 것을 지(志)라고 하였는데(意之所存, 謂之志)¹⁹⁾, 장²³⁾과 양²⁴⁾은 의가 이미 결정되어 확고히 선 상태라고 하였고, 김¹³⁾은 지가 생각이 결정된 것으로

서 분석하고 통합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하였다.

즉, 지는 대상을 지각하고 기억한 것이 점차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래 존재하는 상태에서 뜻이 확고해져 의지가 생긴 상태를 의미하므로 어떠한 뜻을 세워 이루려는 마음을 굳세게 지켜 나가는 힘을 뜻하는 의지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사(思)

지(志)로 인하여 변하는 것을 사(思)라고 하였는데(因志而存變, 謂之思)¹⁹⁾, 장²³⁾과 양²⁴⁾은 의와 지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하였고, 김¹³⁾은 의(意)·지(志)가 정리된 후에 다시 비교하고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지속되어 있는 가운데 고착된 상태가 아닌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착이란 문제해결을 할 때 새로운 조망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장애물과 같은 것으로서, 과거에 작동했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성인 마음 갖춤새(mental set)와 사물의 대안적 용도를 상상하지 못하고 친숙한 기능만을 생각하려는 경향성인 기능적 고착이 있다⁹⁾. 그리고 고착과 함께 자신의 선입견을 확증해 주는 정보를 찾는 경향성인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도 생각의 유연성이나 문제해결을 방해한다⁴⁾. 따라서 사(思)는 중요한 일이나 확고해진 뜻에 대해 선입견이나 고착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사고의 유연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5) 여(慮)

사(思)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멀리 헤아리는 것을 여(慮)라고 하였는데(因思而遠慕, 謂之慮)¹⁹⁾, 장²³⁾과 양²⁴⁾은 깊고 멀리까지 생각하는 것이라 하였고, 김¹³⁾은 심사숙고하고 세밀히 사고하여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탐색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멀리 보고, 넓게 헤아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어떤 일을 꼼꼼이 잘 생각하는 숙고나 사물의 이치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궁리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정보나 신념을 일련의 단계를 거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정신 활동을 추론이라 하는데, 하나의 신념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론적 추론과 무엇을 할지 파악하거나 어떤 행위를 지향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실제적 추론이 있다³⁾. 따라서 여(慮)는 깊게 헤아리며 대상을 이해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인 추론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6) 지(智)

폭넓게 헤아리는 여(慮)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지(智)라고 하였는데(因慮而處物, 謂之智¹⁹⁾, 장²³⁾은 최선으로 대처하는 것이라 하였고 양²⁴⁾은 여를 통해 선택한 바가 있고, 서로 맞는 것을 정하는 처리 방법이라 하였으며 김¹³⁾은 지는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여 완성하는 사고 활동을 뜻한다고 하였다.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지능이나 지혜가 가장 필요한 과정이므로 중국어에서 지능(智能)과 지혜(智慧)에 사용된 지(智)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지능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으로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⁴⁾. 분석적 지능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한 다음 해결전략을 찾는 능력이고, 창의적 능력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며, 실제적 지능은 일상 장면에서 해결책을 적용하고 유용하게 되도록 하는 능력이다³⁾. 따라서 지(智)는 단순히 일이나 문제를 대처하고 처리하는 판단력이나 결정력과 함께 지능에 관련된 부분까지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이상과 같이 심·의·지·사·여·지로 설명되고 있는 정신 작용을 살펴본 결과, 의식에서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여 가지게 된 뜻을 추론과 판단의 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결정에 이르는 인지 과정 또는 사고 과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의식의 속성³⁾인 의도, 유동성, 선택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의도(intentionality)는 한 대상으로 향하는 속성으로 심(心)의 과정을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유동성(transience)은 시간에 따라 흘러가거나 변하는 속성으로 사(思)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선택(selectivity)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결정과 관계된 것으로 의(意)와 지(智)가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심·의·지·사·여·지는 사고가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지력(志)이 부족한 것은 욕구(心)나 동기(意)가 적어서 생길 수 있고, 추론력(慮)이 부족한 것은 의지력(志)이나 사고의 유연성(思)이 적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 과정 중에 어떤 능력이 부족하면 이전 단계의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치료에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의사결정 과정^{19,20)}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개발하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심·의·지·사·여·지라는 인지 과정의 범주 안에서 있는 점에서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의 발견과 인식, 내적탐색, 대안개발, 대안평가, 해결방안의 선택과 실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의 단계인데, 의사결정자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자각하는 과정^{21,22)}으로서 대상을 지각하고 감각기억을 가지게 되는 심(心)의 과정과 유사하다. 두 번째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단계인데, 하고 싶거나 해결해야 하는 것을 파악하여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21,22)}으로서 인식한 것을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의(意)의 과정과 유사하다. 세 번째는 내적탐색의 단계인데, 원하는 것이나 해결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21,22)}으로서 마음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확고한 의지가 생긴 지(志)의 과정과 유사하다. 네 번째는 대안의 분석과 개발의 단계인데, 자유연상과 유추연상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가능한 많은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과정^{21,22)}으로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의 시도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는 사(思)의 과정과 유사하다. 다섯 번째는 대안평가 단계인데, 대안들이 확인되면 각 대안의 강점과 약점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21,22)}으로서 깊게 추론하는 여(慮)의 과정과 유사하다. 여섯 번째는 최선안 선택의 단계인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론에 도달하여 최선안을 선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여 구체적인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21,22)}으로서 최종적으로 판단(선택)하여 일을 처리하는 지(智)의 과정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심(心)은 지각과 감각기억 또는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의 단계, 의(意)는 인식과 단기기억 또는 문제 인식, 지(志)는 확고한 의지력 또는 내적탐색, 사(思)는 사고의 유연성 또는 대안 개발, 여(慮)는 심사숙고하는 추론력

또는 대안 평가, 지(智)는 지능과 판단력 또는 결정을 의미한다.

3. 혼(魂)과 백(魄)

혼과 백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김 등¹³⁾은 혼은 사람의 생명 활동에 의해서 발현되는 지각 기능으로서 꿈을 포함한 각종 환각 등의 무의식과 감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이 주관한다고 했고, 백은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식활동과 조건반사로 일어나는 감각과 운동이며 폐가 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등⁷⁾은 혼백 개념을 분석심리학 고찰을 통해 아니무스-아니마가 원형으로서 지니는 자율적 에너지의 차원에서 볼 때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목적성의 관점에서 혼은 의식의 흐름에 반영되어 통합을 이루려는 정신적 경향성을 가지며 백은 육체의 기능과 보호를 위한 본능적 경향성을 가진다고 했다.

황제내경^{18,19)}에서는 혼백의 기능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신혼백(精神魂魄), 영위혼백(榮衛魂魄), 신기혼백(神氣魂魄), 정신혈기혼백(精神血氣魂魄) 등으로 기술되고, 오장이 혼백을 장(藏)한다고 했다. 그리고 혈기, 영위, 오장, 신기와 함께 혼백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血氣已和, 榮衛已通, 五藏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 《靈樞·天年》)¹⁹⁾고 하여 혼백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요소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신(神)이 피로하면 혼백이 흩어지고, 정(精)을 잃거나 사기가 침범하면 혼백이 비양(飛揚)하며, 지의(志意)가 조화로우면 혼백이 흩어지지 않고 거두어지며, 고요히 거처하면 혼백이 흩어지지 않는다”¹⁹⁾고 하여 혼백의 건강을 위한 방법과 함께 혼백을 비양(飛揚)하거나 흩어지는(散) 비물질적 실재로 표현하기도 했다.

《영추·본신》¹⁹⁾에서는 “덕이 흐르고 기가 도달해 만나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정(精)이라 하고, 남녀의 정이 서로 만나는 것을 신이라 하고, 신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혼이라 하고, 정과 아울러 출입하는 것을 백이라 한다.”고 했다(德流氣薄而生者也,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隨神往來者, 謂之魂, 並精而出入者, 謂之魄).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정(生之來謂之精)은 육체 이전의 수정란을 의미하고, 부모의 정이 만나는 것에서 드러난 신(兩精相搏謂之神)은 인체 생명활동의 법칙^{17,19)}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정과 신이 갖

춰져 생명이 있게 되고, 정과 신을 토대로 나타나는 혼과 백이 있으며, 이후 심·의·지·사·여·지에 대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혼·백에 대한 설명과 심·의·지·사·여·지에 대한 설명 사이에 “그런 까닭에(所以)”라는 접속부사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에²⁵⁾”는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근거가 될 때 쓰는 말이므로, 앞의 내용이 혼과 백이고 뒤의 내용이 심·의·지·사·여·지로 표현되는 인지과정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인지과정이나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혼과 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사람에게 있는 혼과 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지각하고 인지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혼과 백은 사람에게 사물을 지각하고, 인지하며, 추론하고, 판단과 결정하는 기능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혼과 백에 대해서는 신(神)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혼이라 하고, 정(精)과 아울러 출입하는 것을 백이라고 했다. 혼은 정신을 주재하는 신과 함께 작용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혼은 정신 기능과 관련이 있고, 백은 육체를 나타내는 정과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백은 신체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의 작용에 대해 장²³⁾은 정신과 의식, 깨달음이라고 했고(其精神性識 漸有知覺 此則氣之神也), 양²⁴⁾은 신기(神氣)의 왕래를 따라 정신의식을 대표하는 활동(隨從神氣的往來活動代表着精神意識的叫做魂)이라고 하여 의식에서 나타나는 정신 기능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혼이란 꿈을 꾸는 것 같이 황홀하고, 환상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魂之謂言, 如夢寐恍惚, 變幻游行之境是也)²³⁾”고 하여 꿈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니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정신 활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혼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지각, 사고, 기억, 감정 등의 정신³⁾ 작용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정신 작용을 주관하는 비물질적 실재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리고 백에 대해서는 사람이 생겨날 때 형성된 형체에서 나타나는 신령한 작용을 나타낸다(人之生也 始變化爲形 形之靈曰魄)²³⁾고 하여 신체에서 나타나는 작용임을 말했고, 눈과 귀 등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수축을 움직이는 작용도 나타내며(初生時 耳目心識 手足運動 此魄之靈也)²³⁾,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는 운동작용과 아프고 가려움을 느끼는 감각작용에 쓰인다고 했다(魄之爲用, 能動能作, 痛痒由

之而覺也)²³⁾. 이와 같은 신체의 감각과 운동 작용은 외부와 신체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하며, 신체 조직에 정보를 되돌려 보내 명령을 내리는 작용을 통해 생명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신경계⁴⁾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신경계⁴⁾는 뇌와 척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와 감각·운동뉴런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여 감각을 느끼고 운동을 조절하는 체신경계, 그리고 내장기관과 내분비선 등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로 구성되는데, 백을 가리켜서 육체와 아울러 출입한다고 했고, 육체에서 나타나는 신령한 작용이라고 한 것이 바로 신경계의 작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은 신경계의 작용을 포함한 신체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백이 흩어진다(魄散)는 표현과 같이 신체적인 기능을 주관하는 비물질적 실재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4. 오신(五神)

《영추·본신》에서는 감정이 기(氣)와 오신(五神)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감정과 오신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오신 각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혼(魂)

혼의 기능에 대해서 최¹⁰⁾는 신의 양적인 작용면으로 무의식 상태에서의 감각, 동작, 사유, 인식, 판단, 평가 등의 정신활동이라고 했고, 백¹¹⁾은 의식발현의 전단계를 주도하여 의식적 각성을 추동하고 인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박¹²⁾은 계획의 수립이나 창의적인 생각, 예술적인 창작활동, 판단의 실행, 언어활동, 감정의 표현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과 의도적인 행동이나 자세의 유지와 같은 육체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이루어져 외부로 드러나는 활동이라고 했고, 윤²⁶⁾은 기억을 희생시키는 발생기능 활동으로 충동기능이라 하였다.

슬픔과 애담음이 마음에서 요동치면 혼을 상하는데, 혼이 상하게 되면 갑자기 심하게 잊어버려 언행이 정확하지 못하니, 곧 언행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狂忘不精, 不精則不正當)¹⁹⁾. 여기에서 광(狂)²⁵⁾은 광증(狂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심하게’라는 의미로서 기억력 저하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지(志)가 상하여 나타나는 완만한 기억력 저하(喜忘其前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이 상하지 않는다면 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므로 과거의 일을 잘 떠올리며 말하고, 과거에 하기로 생각했던 일을 계획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기억이란 시간에 걸쳐 정보를 저장하고 보유하며 인출하는 능력인데, 혼은 목의 속성²⁸⁾을 가지고 있는 간에 배속되어 있으므로 저장했던 기억을 불러오는 인출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³⁾. 즉, 오신의 혼은 무의식에 있던 과거의 것을 기억하여 의식으로 떠올리게 하는 기억 인출력과 같은 정신작용이다.

2) 신(神)

신의 기능에 대해서 최¹⁰⁾는 혼백과 지의를 통솔하고 주재한다고 하였고, 백¹¹⁾은 의식의 발현을 통하여 외계의 변화를 감지하여 인식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박¹²⁾은 신에 대해 정신활동의 주체로서 모든 정상적이고 정확하며 완전무결한 정신활동이며, 정상적인 혼·백·의·지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성¹⁴⁾은 모든 정신활동과 그 과정을 주관하는 존재이며, 오신은 감각, 지각, 주의, 기억, 사유, 상상, 판단, 의지 등을 포괄한다고 하였으며, 윤²⁶⁾은 정신활동을 지속시키는 추진기능 활동으로 신명기능이라고 하였다.

생각과 염려가 많아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고 마음이 불안하면 신을 상하게 되는데, 신을 상하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자신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멍하게 된다(怵惕思慮者則傷神, 神傷則恐懼流淫而不止. 神傷則恐懼自失)¹⁹⁾. 출척사려(怵惕思慮)는 두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이성적인 사려과다^{14,15)}의 문제가 아니라 본 문장에서는 감정이 오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애(悲哀), 우수(憂愁), 희락(喜樂), 노(怒)와 같이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출척사려는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자신의 말이나 행위가 틀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해 조심스럽고 불안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의 결과 신(神)이 상하면 사고 기능에 영향을 미쳐 두려움이 많아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신이 상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확장시키며, 또렷한 정신으로 자신이 뜻한 바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감정에 의해 혼·신·의·백·지가 상하

면 갑자기 심하게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정신이 멍해지고, 의식이 혼란스럽고 혼탁하며, 기억력이 저하되는데(狂忘不精, 恐懼自失, 恍惚, 意不存人, 喜忘其前言), 이는 모두 의식의 사고 기능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따라서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자신감이 없어 불안해하는 출척사려(恍惚思慮)²⁵⁾로 인해 나타나는 공구자실(恐懼自失)²⁵⁾은 단순히 두려운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 심해져 두려움이 된 상태에서 자기자신을 잊고 멍해진 망연자실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일에 두려움이 없이 사고를 확장해가는 추진력은 일을 밀고 나가 실행하는 힘이고, 창의력은 새롭고도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보통 잘 발달된 지식기반이나 상상력 사고 기술, 내재적 동기 등은 창의력을 높이지만 평가 받을 것이라는 염려나 외재적 자극의 걱정은 창의력을 방해한다⁴⁾.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생각을 확장시키는 창의력이 저하되어 사고의 추진력도 부족해지므로, 창의력은 신(神)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오신의 신은 의식에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추진력 있게 펼칠 수 있게 하는 창의력과 같은 정신작용이다.

3) 의(意)

의의 기능에 대해서 최¹⁰⁾는 지의는 신이 의식·사유 등으로 발현되는 정신적 기능이라 했고, 백¹¹⁾은 과거와 현실 간 정보를 공유하고 취사선택하며 사고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박¹²⁾은 의가 백에 의해 새롭게 받아들이는 정보와 이미 저장되어 있던 것을 회상하여 인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정보의 유용성 여부를 취사선택하는 기능을 말한다고 했고, 성¹⁴⁾은 정신활동과정인 심·의·지·사·여·지에서 사와 여가 의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윤²⁶⁾은 기억들을 통합하여 자기화하는 통합기능 활동으로 인격기능이라고 했다.

근심이 심하여 해소되지 않으면 의를 상하게 되는데, 의가 상하면 뜻이 흐려지고 마음이 어수선하게 된다(憂愁而不解則傷意, 意傷則恍惚)¹⁹⁾. 문(惛)은 기억해 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란(亂)²⁵⁾은 정신이 흐려지거나 어수선하여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문란이 설명하는 증상은 가벼운 의식 손상으로 지남력이 상실되는 의식의 혼돈²⁷⁾과 유사하다. 또한

주변의 다양한 자극에 주의가 분산되어 합목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 산만 상태라고 하며 다양한 정신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데²⁷⁾, 이러한 상태를 의가 손상되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의식의 속성 중의 하나인 통합(unity)³⁾은 모든 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통합하는 능력이므로 의(意)가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우면 주의력이 약화되어 정보를 취합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저하된다. 주의력²⁷⁾이란 생체가 필요한 사료를 얻기 위하여 입력되는 신호를 검증하는 적극적, 선택적인 과정으로서 주의력을 이루는 각성은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계의 태세를 말한다. 따라서 의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면 주의력을 가지고 마음에 중심을 잡아 정보를 잘 취합하고 통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오신에서 의는 주의력을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는 통합력과 같은 정신작용이다.

4) 백(魄)

백의 기능에 대해서 최¹⁰⁾는 신의 음적인 작용으로서 본능과 가까운 감각 행동이라 했고, 백¹¹⁾은 의식의 말미에서 휴식을 유도하고 정보를 반추하여 귀납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¹²⁾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학습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과 감각기관을 통하여 자극이나 외부 환경변화를 인지하는 과정과 같은 육체적인 측면에서 내부로 받아들이는 활동을 말한다고 했고, 성¹⁴⁾은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본능적 동작과 감각 기능으로 주위의 사물이나 사건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억하여 스스로를 외계의 자극으로부터 경계하며 호위하는 작용이라고 했으며 윤²⁶⁾은 불필요한 기억의 회생을 억제하는 억제기능 활동으로 검열기능이라고 했다.

희락이 과도하면 백을 상하고, 백이 손상되면 광(狂)하는데 광이라는 것은 의(意)가 사람에게서 없어진 것이다(喜樂無極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人)¹⁹⁾. 의는 주의를 집중하고 모든 부분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통합하는 기능인데 이성을 잃고(狂)²⁵⁾, 의가 없어진다는 것은 주의력이 저하되고 의식의 혼돈이 심해져 혼탁에 이르는 것을 나타낸다. 의식의 혼탁은 지각 능력이 손상되어 주변의 상황을 명료하게 파악하지 못하며, 이런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을 나중에 기

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²⁷⁾. 이 때 주의력의 집중은 받아들여진 자극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연상과정은 이런 수용된 자극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²⁷⁾. 그리고 질환으로는 지남력 장애, 주의력 결핍, 지각 장애, 정서적 불안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섬망²⁷⁾과 유사하다.

백(魄)이 상하지 않으면 뜻을 확고하게 하는 의(意)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백은 의를 통해 통합된 것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확고히 결정하는 기능이고, 이렇게 의식에서 확고해지면 무의식으로 기억의 저장이 용이해질 수 있다. 즉 오신의 백은 통합된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확고하게 한 뒤 선택하는 결단력과 같은 정신작용이다.

5) 지(志)

지의 기능에 대해서 최¹⁰⁾는 의가 확고하여 고정된 것으로 현재의 의식에는 없지만 저장되어 있는 장기기억을 의미한다고 했고, 백¹¹⁾은 의식을 정화하고 정보를 융합해서 정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일관성의 지표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박¹²⁾은 지에 대해 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마련된 판단과 결정의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저장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했고, 성¹⁴⁾은 인지과정의 심·의·지·사·여·지의 지와 오신의 지가 같은 의미라고 했으며 윤²⁶⁾은 의식화한 것이나 새로 오는 기억재를 정화하여 진존시키는 침정기능 활동으로 작강기능이라고 했다.

분노가 극성하며 그치지 않으면 지를 상하는데, 지가 상하면 전에 한 말을 잘 잊어버린다(盛怒而不止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¹⁹⁾. 이는 지가 상하지 않았다면 전에 했던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지가 기억과 관련된 기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억작용³⁾은 저장과 보유, 인출의 과정이 있는데 지는 수의 속성²⁸⁾을 가지고 있는 신에 배속되어 있으므로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³⁾. 그러므로 즉 오신의 지는 명확해지고 확고해진 뜻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기억을 유지하게 하는 정신작용이라 할 수 있다.

무의식은 평소에 자각하지 못하는 사고, 소망, 감정과 함께 기억이 들어 있는데⁴⁾, 그 내용은 어떤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기억^{3,4)}은 우선 단기기억으로 저장되고 선택적으로 기억공고화의 과정을 통해 영구적인 기억

으로 전환된다는 개념에 비추어볼 때 장기기억을 지로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즉 오신에서 지는 이미 결정된 생각을 기억에 저장하는 기억 저장력과 같은 정신 작용이다.

이상과 같이 《영추·본신》에서는 칠정이 오신에 미치는 영향, 즉 감정이 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혼·신·의·백·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의식(consciousness)^{3,4)}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자각으로서 감각, 사고, 정서 등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여 돌이켜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무의식^{3,4)}은 의식적 자각 밖에서 작동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동시에 일어나며 의식적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신작용을 크게 사고(이성)와 감정(감성)으로 구분한다면 오신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사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혼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기억을 인출하는 작용이고, 신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창의력이며, 의는 통합력이고, 백은 결단력이며, 지는 무의식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심·의·지·사·여·지와 오신은 모두 여러 가지 사고 기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심·의·지·사·여·지가 의식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나타낸다면 오신은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서 나타나는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구성요소와 작용을 나타내는 정·신·혼·백과 사고작용을 나타내는 오신의 혼·신·의·백·지에서 혼·백은 글자가 같으므로 혼용하여 사용되거나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신·혼·백의 혼은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정신작용을 나타내고, 백은 감각과 운동 작용에 관계된 신경계의 기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에서 나타나는 사고 작용을 의미하는 혼·신·의·백·지 오신에서 혼은 기억을 인출하는 작용이고, 백은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결단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혼·백과 혼·신·의·백·지의 혼과 백은 동자이의어(同字異義語)로서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칠정(七情)

칠정이란 희·노·우·사·비·공·경의 일곱 가지 정서로서 체내에서 각기 다른 기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칠정이 과도하게 나타나 스트레스 인자가 되는 칠기(七氣)는 오장

등 신체에 병리적인 변화를 유발한다¹⁾. 정서가 신체에 일으키는 기의 변화는 “노즉기상, 희즉기완, 비즉기소, 공즉기하, 경즉기란, 사즉기결(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驚則氣亂, 思則氣結 《素問·舉痛論》¹⁹⁾”하고, “풍한은 형체를 상하게 하는 반면 감정은 체내의 기를 상하게 한다(風寒傷形, 憂恐忿怒傷氣 《靈樞·壽夭剛柔》¹⁹⁾”. 그리고 정서가 오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희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오장이 손상된다(喜怒不節則傷臟 《靈樞·百病始生》¹⁹⁾”고 하였고, 감정과 오장을 연결시켜 “노상간, 희상심, 사상비, 우상폐, 공상신(怒傷肝, 喜傷心, 思傷脾, 憂傷肺, 恐傷腎 《素問·陰陽應象大論》¹⁹⁾”이라 하였다. 또한 《소문·옥기진장론》에서는 칠정이 오장 상극(相克)의 법칙대로 전변(傳變)하지 않으므로 감정이 오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변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이와 같이 정서와 신체는 병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감정이 유발하는 기의 변화와 오장의 손상, 오장의 문제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감정이 사고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희(喜)

기뻐하면 기가 조화롭고 뜻이 창달하여 영위가 원활하게 잘 통하므로 기가 이완된다(喜則氣緩 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 《素問·舉痛論》¹⁸⁾.” 즐거움은 기를 상하는데 과도한 기쁨은 양기를 상하게 한다(喜怒傷氣, 寒暑傷形. 暴怒傷陰, 暴喜傷陽 《素問·陰陽應象大論》¹⁸⁾. 그리고 심이 주관하는 감정은 기쁨인데, 과도한 기쁨은 심을 상하게 한다(心在志爲喜 喜傷心 《素問·陰陽應象大論》¹⁸⁾. 이는 과도한 기쁨이 심을 상하게 하고, 기의 변화를 일으켜 증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또한 과도하게 기뻐하면 백(魄)이 상하게 되어 결정을 잘 못하게 되고, 신이 소모되어 없어지고 돌아오지 않으니 얼빠진 사람처럼 된다(神憚散而不藏¹⁹⁾. 그리고 폐는 기를 간직하고, 기는 백을 머무르게 하는데(肺藏氣, 氣舍魄¹⁹⁾, 기뻐하면 백이 상한다는 것은 먼저 폐가 손상되어 기를 저장하지 못해 백이 머무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백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단력에 문제가 생기므로, 과도한 희락(喜樂)은 폐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단력이라는 사고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한편 기뻐하여 폐가 상하면 피부가 초취해진다(皮革焦¹⁹⁾. 폐기(肺氣)가 부족하면 코가 막혀 호흡이 불리하니 기운이 약해지고, 울체되어 실하면 천갈(喘喝)하여 가슴이 팍 차서 턱을 내밀고 하늘을 보며 숨을 쉬게 되므로(肺氣虛則鼻塞不利少氣, 實則喘喝 盈仰息¹⁹⁾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서 마음에 세운 뜻이 흔들리며 흐려지면 백이 상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심기가 실하면 끊임없이 웃는데(心氣實則笑不休¹⁹⁾, 이는 심의 추동기능이 과해지거나 심화상염(心火上炎²⁸⁾이란 증후를 유발하면 심번(心煩), 면적(面赤), 구갈(口渴), 실면(失眠) 등 실증(實證)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신체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병인을 파악할 때 내·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희락은 심이나 폐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웃는다면 심기가 실한 문제로 구분하여 진단해야 한다.

2) 노(怒)

분노하면 체내의 기는 정상 순환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서 피를 토하고 설사를 하며(怒則氣逆, 嘔血及殫泄 《素問·舉痛論》¹⁸⁾, 크게 노하면 형체와 기가 막혀 끊어지고, 혈이 상부로 올라오니 실신하게 된다(大怒則形氣絕而, 血菀於上, 使人薄厥 《素問·生氣通天論》¹⁸⁾. 그리고 간이 주관하는 감정은 분노로서 분노는 간을 상한다(肝在志爲怒 怒傷肝 《素問·陰陽應象大論》¹⁸⁾. 이는 과도한 감정이 오장을 상하게 하고, 체내에서 기의 변화를 일으켜 증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또한 분노하면 지가 상하게 되어 전에 했던 말을 잊을 정도로 기억력이 저하되고(盛怒而不止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 판단력을 잃어 결정을 못하고 자기 생각에 의식이 생겨나므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迷惑而不治¹⁹⁾. 그리고 신은 정을 간직하고, 정은 지를 머무르게 하는데(腎藏精, 精舍志¹⁹⁾ 분노하면 지가 상한다는 것은 먼저 신이 손상되어 정을 저장하지 못해 지가 머무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노가 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에 영향을 주어 기억 저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으로서 감정이 사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분노하여 신이 상하면 허리의 굴신운동이 어려워지고, 신기(腎氣)가 부족하면 수족이 냉해지고, 신기가 울체되

어 실하면 부종이 나타나며 오장이 불안해지므로(腎氣虛則厥, 實則脹, 五藏不安)¹⁹⁾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서 지(志)가 상하면 기억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간기가 실하면 분노하고(肝氣實則怒 《靈樞·本神》)¹⁹⁾, 혈유여하면 분노하는데(血有餘則怒 《素問·調經論》)¹⁸⁾ 이는 간기울결 등으로 간기가 실하거나 혈이 울체 되면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²⁵⁾이다. 이는 신체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병인을 파악할 때 내·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분노는 간이나 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분노할만한 일이 없이 화를 낸다면 간기가 실한 문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우(憂)

근심하면 기가 막혀 운행하지 못하고(愁憂者, 氣閉塞而不行 《素問·舉痛論》)¹⁸⁾, 심을 상하게 한다(愁憂恐懼則傷心 《靈樞·邪氣藏府病形》, 憂思傷心 《靈樞·百病始生》)¹⁹⁾. 슬프거나 근심하면 심이 요동하여 오장육부가 불안하고(悲哀愁憂則心動, 心動則五藏六府皆搖 《靈樞·九門》)¹⁹⁾, 심계가 급박해 기도가 속박되어 기의 순행이 순조롭지 못하므로 한숨을 내쉰다(憂思則心系急, 心系急則氣道約, 約則不利, 故太息以伸之 《素問·舉痛論》)¹⁸⁾. 그리고 근심이 비(脾)를 상하면 사지를 움직이기 어렵다(四肢不舉)¹⁹⁾고 했는데 이는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근심하면 의가 상하게 되어 뜻을 조율하고 명확하게 하기 어렵게 된다(憂愁而不解則傷意, 意傷則恍惚亂)¹⁹⁾. 그리고 비는 영을 간직하고, 영은 의를 머무르게 하는데(脾藏營, 營舍意)¹⁹⁾, 근심하면 의가 상한다는 것은 먼저 비가 손상되어 영을 저장하지 못해 의가 머물러 활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심이 비(脾)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營)에 영향을 주어 통합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으로서 감정이 사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심장이 작으면 안정되어 외사에는 손상되지 않으나 근심으로 인해 상하기 쉽고, 심장이 크면 근심으로 인해 상하지는 않으나 외사에 의해 상하기 쉽다(心小則安, 邪弗能傷, 易傷以憂; 心大則憂不能傷, 易傷于邪 《靈樞·本臟》)¹⁹⁾. 그리고 오장이 모두 작으면 병은 적으나 노심초사하고 근심한다고 했으니(五藏皆小者, 少病, 苦焦心, 大愁憂 《靈樞·本臟》)¹⁹⁾ 신체적 요인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思)

고민하면 심(心)과 신(神)이 있어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니 기가 울결된다(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 《素問·舉痛論》)¹⁸⁾. 그리고 비의 감정은 사인데, 과도한 고민은 비를 상한다(脾在志爲思, 思傷脾 《素問·陰陽應象大論》)¹⁸⁾. 이는 과도한 감정이 오장을 상하게 하고, 체내에서 기의 변화를 일으켜 증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면 신(神)이 상하게 되어 자신감 보다는 두려움이 많아지고 자신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멍하게 된다(恐懼自失)²⁵⁾. 심은 맥을 간직하고 있고, 맥은 신을 머무르게 한다(心藏脈, 脈舍神)¹⁹⁾. 고민하면 신(神)을 상하다는 것은 먼저 심이 손상되어 맥을 저장하지 못해 신이 머무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고민이 심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으로서 감정이 사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고민하여 심이 상하면 기육이 야위는데(破膈脫肉)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서 창의력이 저하되면 심의 문제로 맥이 소모되어 신(神)이 상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5) 비(悲)

슬퍼하면 심계가 급해지고 폐엽이 들려서 상초가 통하지 않고 영위가 펼쳐지지 못해 열기가 안에 있게 되므로 기가 소모된다(悲則心係急, 肺布葉舉, 而上焦不通, 榮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也 《素問·舉痛論》)¹⁸⁾. 또 비애가 심하면 심포락이 끊어지고 심병이 발하면 피오줌을 누게 된다(悲哀太甚 則包絡絕 則陽氣內動 發則心下崩 《素問·痿論》)¹⁸⁾ 그리고 폐의 감정은 슬픔으로서, 과도한 슬픔은 폐를 상한다(肺在志爲悲 悲傷肺 《素問·陰陽應象大論》)¹⁸⁾. 이는 과도한 슬픔이 폐를 상하게 하고, 체내에서 기의 변화를 일으켜 증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다.

슬퍼하면 혼이 상하게 되어 기억의 인출이 잘 되지 않아 기억력이 저하되어 생각이나 행동이 맞지 않고(魂傷則狂妄不精, 不精則不正當), 기가 끊어져서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竭絕而失生). 그리고 간은 혈을 간직하고, 혈은 혼을 머무르게 한다(肝藏血, 血舍魂)¹⁹⁾ 슬퍼하면 혼이 상한다는 것은 먼

저 간이 손상되어 혈을 저장하지 못해 혼이 머무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슬픔이 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혈에 영향을 주어 기억 인출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으로서 감정이 사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심기가 허하면 슬퍼하고(心氣虛則悲)¹⁹⁾, 신(神)이 부족하면 슬퍼하는데(神不足則悲 《素問·調經論》)¹⁸⁾ 심기허(心氣虛)²⁸⁾는 심계(心悸), 기단(氣短), 면색무화(面色無華), 맥세약(脈細弱)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신체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병인을 파악할 때 내·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슬픔은 폐나 간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슬픈 일이 없이 슬퍼한다면 심기가 허한 문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6) 공(恐)

두려워하면 정이 상하고 상초가 막혀서 기가 아래로 돌아와 하초가 부으니 기가 순행하지 못한다(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不行矣 《素問·舉痛論》)¹⁸⁾. 그리고 신(腎)의 감정은 두려움인데 과도한 두려움은 신을 상하며(腎在志爲恐. 恐傷腎 《素問·陰陽應象大論》)¹⁸⁾, 우수와 함께 두려움은 심을 상하게 한다(愁憂恐懼則傷心 《素問·邪氣藏府病形》)¹⁸⁾. 또한 두려움은 정을 상하게 하므로 뼈가 시리고 차며 정액이 흘러내린다(骨痠痿厥 精時自下). 이는 과도한 두려움이 신을 상하게 하고, 체내에서 기의 정체를 일으켜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면 신이 흩어져 거두어지지 않는데(神蕩憚而不收), 이는 희락으로 인해 신이 흩어져 저장되지 않는 것(神憚散而不藏)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의 기능을 손상하여 사고의 정리나 결단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두려움이란 감정은 결단력이라는 사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간기가 허하면 두려워하고(肝氣虛則恐 《靈樞·本神》)¹⁹⁾, 혈이 부족하면 두려워하므로(血不足則恐 《素問·調經論》)¹⁹⁾, 간에 혈이 부족하여 기능이 약해지면 두려운 감정이 나타나니 곧 신체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서 병인을 파악할 때 내·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두려움은 신(腎)을 상하게 하고, 두려울만한 일이 없이 두려워한다면 간기나 혈이 허한 문제로 진단해야 한다.

7) 경(驚)

놀라면 심이 의지할 곳이없고 신이 돌아갈 곳이 없으며 생각이 정할 곳이 없으므로 기가 어지러워진다(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素問·調經論》)¹⁹⁾.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하면 신기가 산란해져서 폐를 흔들므로 폐에서 기침이 나오며(有所驚恐, 喘出於肺 《素問·經脈別論》)¹⁸⁾ 놀라서 정을 빼앗기면 심에서 땀이 나온다(驚而奪精, 汗出於心 《素問·經脈別論》)¹⁸⁾고 했는데 이는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간의 열병이 있으면 광언하고 깜짝깜짝 놀라고(肝熱病者 熱爭則狂言及驚 《素問·刺熱》)¹⁸⁾ 비가 간으로 열을 옮기면 놀란다(脾移熱於肝, 則爲驚 《素問·氣厥論》)¹⁸⁾. 간비는 밤에 누우면 놀라고(肝痺者, 夜臥則驚 《素問·痺論》)¹⁸⁾, 간옹이 있으면 양 겨드랑이가 그득하고 누우면 놀란다(肝雍, 兩脇滿, 臥則驚 《素問·大奇論》)¹⁸⁾. 수병에 걸리면 눕기 어려운데 누우면 놀라고(諸水病者, 故不得臥, 臥則驚 《素問·評熱病論》)¹⁸⁾, 폐학이 되면 심한하게 되는데 한이 심해지면 열이 나고 잘 놀란다(肺瘵者, 令人心寒, 寒甚熱, 熱間善驚 《素問·刺瘵》)¹⁸⁾. 또한 양명경이 끊어지거나 쪼갤 역하면 잘 놀라고(陽明厥逆, 善驚 《素問·刺瘵》)¹⁸⁾, 陽明終者, 喜驚 《靈樞·終始》)¹⁹⁾, 陽明終者, 口目動作, 善驚妄言 《素問·診要經脈論》)¹⁸⁾. 병이 신에서 발생하는 신펡은 잘 먹을 수 없고 잘 놀란다(腎風而不能食, 善驚 《素問·奇病論》)¹⁸⁾. 이는 오장의 문제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서 내·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놀람인지, 신체적 문제로 인한 놀람인지 구분해서 치료에 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과도한 감정은 기의 변화를 일으켜 신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고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며, 반대로 오장의 허실은 감정의 발생을 일으키므로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 유지도 중요하다. 《영추·본신》¹⁹⁾의 첫 문장에서는 음란함이 극에 달하면 오장이 저장기능을 잃어 정(精)을 잃게 되니 정신과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어지러우며, 지혜가 없어진다(至其淫泆, 離藏則精失, 魂魄飛揚, 志意恍惚, 智慮去身)고 하여 과도방사(過度房事)도 오장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사고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감정은 하나의 장(臟)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희(喜)는 심(心)과 폐(肺), 노(怒)는 간(肝)과 신

(腎), 우(憂)는 심(心)과 비(脾), 사(思)는 비(脾)와 심(心), 비(悲)는 폐(肺)와 간(肝), 공(恐)은 신(腎)과 심폐(心肺), 경(驚)은 심(心)과 폐(肺)의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결국 오장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하기 어렵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정과 관련한 병인을 파악할 때는 내면이나 외부에서 유발된 자극에 의한 감정과 오장의 허실에 기인한 감정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감정을 다스리는 치료와 오장을 다스리는 치료를 한다면 치료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슬픔은 간에 영향을 미치고, 분노는 신에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의 저하를 유발하므로 간이나 신의 기능저하와 기억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근심이 비장에 영향을 미쳐 의식의 혼돈이나 주의 집중 저하를 유발하므로 비장의 기능 저하와 주의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진다면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적 확인뿐만 아니라 건망이나 치매, 주의력 결핍장애 등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I. 결론

1. 신(神)은 생명활동의 근원과 법칙(규율), 정신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2. 혼(魂)·백(魄)에서 혼은 사고와 감정 등의 정신 작용을 의미하고, 백은 신경계의 작용에 의한 신체의 감각과 운동기능을 의미하고 있다.

3. 오신(五神)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기억인출, 창의력, 통합, 선택, 기억저장 등의 사고 작용을 의미한다. 혼(魂)은 기억을 의식으로 인출하는 기억력이고, 신(神)은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펼치는 창의력이며, 의(意)는 정보를 취합해서 통합하는 통합력이고, 백(魄)은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결단력이고, 지(志)는 기억을 무의식으로 저장하는 기억력을 나타내고 있다.

4. 정(精)·신(神)·혼(魂)·백(魄)에서의 혼은 정신작용, 백은 감각과 운동기능을 나타내고 오신(五神)에서의 혼은 기억 인출, 백은 선택과 결정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어 글자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신령스럽거나 정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신(神)과 오신에서의 신(神)도 동자이의어(同字異義語)이다.

5. 심·의·지·사·여·지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인지

사고 과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을 나타낸다. 심(心)은 지각과 감각기억, 의(意)는 인식과 단기기억, 지(志)는 의지력, 사(思)는 사고의 유연성, 여(慮)는 추론력, 지(志)는 지능과 판단력을 의미한다. 한편 인지과정의 심(心)과 정신을 주관하는 심(心)은 다른 개념이며, 인지과정의 의(意)·지(志)도 오신의 의(意)·지(志)와 의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6. 정신 병리는 과도한 희락(喜樂)이 심과 폐를 상하게 하고, 분노(怒)는 간과 신, 근심(憂)은 심과 비, 고민(思)은 비와 심, 슬픔(悲)는 폐와 간, 두려움(恐)은 신과 심폐, 놀람(驚)은 심과 폐 등 두 개 이상의 장을 상하게 한다. 또 감정이 과도하면 오신에도 영향을 주어 사고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는데 희락은 결단력을 저하시키고, 분노는 기억의 저장능력, 근심은 정보의 통합력, 고민은 창의력, 슬픔은 기억의 인출능력, 두려움은 결단력을 부족하게 한다.

한편 오장의 허실은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병인을 파악할 때 내·외부적 자극에 의한 감정인지 신체적 문제에 의한 감정인지 판단하여 치료해야 하며, 원활한 정신작용을 위해서는 감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REFERENCES

1. The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neuropsychiatry of Korean medical schools in nation. The neuropsychiatry of Korean medicine, 3rd edition. Gyeonggi: Jipmoondang. 2016;26-7, 30-1, 33, 192.
2. Jeong CH, Park CK. A study on Shin(神)-focus on Huangdineijing(黃帝內經). Journal of Kyung Hee Oriental Medicine College. 1996;19(2):174-223.
3. Daniel L.Schacter, Daniel T.Gilbert, Daniel M.Wegner, Matthew K. Nock. Psychology, 3rd edition. Seoul: Sigma press. 2016;2, 14, 136, 190-1, 234, 240, 242, 344, 389, 421.
4. David G. Myers. Psychology, 8th edition. Seoul: Sigma press. 2014;333-4, 402-3, 487-8, 492-3, 532, 540-2, 578, 734.
5. Kim JH. A study about Correlation between Mind and Body in the Medical Classics of Hwangjenaegyong(黃帝內經).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8;21(1): 257-83.
6. Kang SH, Lee JH, Kang OH, Kwon DY. Textual Research on Ethereal soul and Corporeal soul.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2012;20(1):81-7.
7. Rhi SJ, Gu BS. A study about symbolic nature of con-

- cepts of Jing(精) · Qi(氣) · Shen(神) · Hun(魂) · Po(魄)- A psycholog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0;11(1):103-13.
8. Bae JS, Kim HS, Lee SH, Lim JH, Seong WY. A Review of HonBeck(魂魄)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7;28(4):409-18.
 9. Yoon SH, Lee SR.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Origin of O-SHIN(五神).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1994;5(1):33-9.
 10. Choi SW, Kang JS. Study on the Five Spirits.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and Pathology. 2001; 15(3):367-72.
 11. Baek SR. A Study on duties and abilities of a human's mentality(five kinds of mental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3;16(2):304-16.
 12. Park SY. A Study on the Functions of the Five Spiri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ive Phases.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5;26(3):201-10.
 13. Kim SH, Ryu YS, Ryu HY. A Study on the concept of Jeong(精) · Shin(神) · Hon(魂) · Baek(魄) · Shim(心) · Ui(意) · Ji(志) · Sa(思) · Ryeo(慮) · ji(志).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1994; 5(1):17-31.
 14. Jung IC, Lee SR. A Study on Change of Emotion and Psychological Dysfunction in the "Benshen" Chapter of the Lingshu.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1999; 10(2):135-56.
 15. Yoon EK, Baik YS, Jeong CH. Emotional Factors in the mechanism of Chilkeongsang(七情傷).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1;24(4):117-42.
 16. Seong WY. A Study of Chiljeong in the Canon of Internal Medicine.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3; 24(4):451-68.
 17. Wu ZC, Zhang DB. Neijingcidian. Shanghai:Renminweisheng Press. 1990:382-3, 399.
 18. Lee GW. The Canon of Internal Medicine(somun). Seoul:Yeogang. 2007:45, 47, 82, 91, 243, 348, 350-1, 401, 490, 514-5, 554, 566, 646, 659, 676, 707.
 19. Bae BC. The Canon of Internal Medicine(youngchu). Seoul:Seongbosa. 1995:107-12, 124-5, 167, 341, 360-1, 401, 617.
 20. Wang KQ. Psychology Theor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eijing:Zhongyiguji Press.1988:4.
 21. Stephen P. Robbins, Mary Coulter, Danid A. DeCenzo. Fundamentals of Management, 10th edition. Seoul: Sigma press. 2018:86-90.
 22. Gil JG. Judgment in managerial decision making. Seoul:Top books. 2015:27, 32, 50-1.
 23. Jang GB. Leijing(類經). Seoul:Hanmi medical publishing cooperation. 2009:151-2.
 24. Yang WJ. The Canon of Internal Medicine. Seoul: Seongbosa. 1980:85.
 25. Son YC. DongA Prime Chinese Korean Dictionary. Seoul:Doosandong. 2008:1185, 1685, 1915, 2679, 2838.
 26. Yoon GY. The Methodology Study for Korean Medicine. Seoul:Seongbosa. 1983:34.
 27.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Textbook of Neuropsychiatry. Seoul:lamis company. 2017:103-5.
 28. Kim WH, Kim GJ. Theories and Clinics of Internal Medicine. Seoul:Iljungs. 1996:59, 64, 112-3, 125.